본문 : 마태복음 18 장 10-14 절
제목 : 길 잃은 작은 자

1. 한 생명의 가치

요즘 <성채, The Citadel> 라는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성체는 1937 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A. J. Cronin 이라는 스코틀랜드 출신 작가의 자서전적인 이야기입니다. 크로닌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스코틀랜드의 작은 시골에 있는 외가에서 자랍니다. 의대에 들어갔지만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는 웨일즈의 한 탕관촌의 조합 소속의 의사로서 3 년을 근무한 후 런던에서 의사 활동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면서 고향인 스코틀랜드에서 요양을 하며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꿈꿔 온 소설가로서의 꿈을 시작합니다. 의사로서의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써진 책이 바로 <성채>입니다. 성채의 주인공은 이제 막 의대를 마치고 탄광촌의 보조 의사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는 앤드류입니다. 앤드류는 처음에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위해 잘 못된 의료제도에 맞서고, 돈과 명예를 좇아가는 선배 의사들에게 저항하며 의로운 길을 걸으려 했습니다. 소설의 후반부에서는 앤드류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이상이 무너지고 잘못 된 시스템에 순응하고, 돈을 따라가고 있는 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성채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후반부에 앤드류가 정신차리고 원래의 자신의 이상을 향해 회복해 가는 노력이 보이긴 합니다. 소설의 초반부에 그가 막 풋내기 의사로 탄광촌에 부임해 와서 열정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은 인상적입니다. 그 중에 한 광부의 아내의 출산을 돕는 이야기는 읽는 이에게 뭉클한 감동을 줍니다. 출산 과정에서 산모는 아기를 출산하고 생명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앤드류는 Pituitrin 주사를 놓은 뒤 주사기를 내던지고 죽은 듯이 늘어져 있는 산모를 소생시키기 위해 온 몸을 던집니다. 그렇게 애쓴 지 몇 분이 지나자 산모의 심장이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기를 보니 아기는 이미 가사(假死) 상태로 팔다리와 목에 힘이 없이 쭉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엔 아기를 살리기 위해 차가운 물과 미지근한 물에 아기를 넣었다 빼기를 반복해 봅니다. 하지만 아기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기를 포기한 그 순간 그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그는 거친 수건으로 아기를 문지르고 손바닥으로 가녀린 가슴을 눌렀다 땠다 하며 축 늘어진 몸뚱이에 숨을 불어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는 온통 땀 범벅이 되었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요. 이윽고 기적이 일어나고

아기는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치료하느라 꼬박 밤을 샜고 새벽 5 시가 되어서야 그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해냈어요. 마침내 의미 있는 일을 해냈어요." 이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되어 저도 숨죽이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앤드류가 느끼는 그 감동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온몸의 전율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2. 업신여기지 말라

한 생명의 소중한 가치, 그것은 의료인들만의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의 이상과 비전이 바로 한 생명의 소중한 가치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10 절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 마음이 없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약하다고 하여 몰아내고, 무능하다고 하여 배제하고, 힘 없다고 하여 외면하는 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가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허투루 지어진 것이 없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이러한 생명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은 인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창조절에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하는 생명 존중의 신앙입니다.

10 절 말씀이 말하는 '이 작은 사람들'은 넓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마태 공동체로 국한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미천한 교우들을 말합니다. 업신여긴다는 헬라말은 '아래'라는 말과 '생각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우리 말로도 업신여기다는 다른 사람을 하찮게 생각하다는 말인데, '없이 여기다'라는 말에서 온 듯합니다. 없이 여김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받는 대우입니다. 없는 사람, 혹은 하찮은 사람으로 대우를 받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생명을 박탈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심한 모멸감이 작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늘 뵙고 있는 천사들이 가난한 이들의 처지에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잠언은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잠언 14 장 31 절)." 만약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뒤를 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면,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3. 이상한 샘법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 끝에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잃어 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었습니다. 양 백마리가 있다는 것은 매우 부자였단 말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양 한 마리가 없어진다 해도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양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 길을 잃지 않은 양 아흔 아홉 마리를 산 속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성경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아흔 아홉 마리를 그냥 놓고 가면 어떡해? 저 양들마저 잃어 버리면 어쩔 것이며 맹수의 습격이라도 받으면 더 낭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는 이 비유를 비유로 보지 않고 현실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비유의 초점은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을 때 공동체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안에서 다른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자이자 낙오자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행군이나 훈련을 하다 보면 꼭 낙오자가 생겼습니다. 군대에서는 이런 낙오자들을 절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직에 필요 없는 사람처럼 취급 받았습니다. <A Few Good Man> 이라는 톰 크루즈와 데미 무어 주연의 영화에 이런 군대 문화가 잘 묘사 되어 있지요. 쿠바와 근접한 관타나모 행병대 기지 안에서 낙오자로 찍힌 병사 한 명이 상관의 명령에 의해 가혹 행위를 당하던 중 사망을 하는 사건을 파해치는 이야기입니다. 잭 니콜슨이 그 기지의 최고 사령관으로 나오는데 그는 죽은 병사가 낙오자이기에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을 법정에서 가감 없이 드러냅니다. 영화는 생명 존중과 거리가 먼 군대 문화를 꼬집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의 효율에 길들여진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벌써

아흔 아홉 마리를 놓고 길을 떠난 목자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이니까요. 그러나 목자의 샘법은 다릅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어 보이고 공동체에서 이탈한 양이지만, 목자는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를 쓸모 없다하여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 서부에 있을 때 양을 치는 지역을 많이 여행했습니다. 양들이 가파른 절벽이나 능선을 타는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동들은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 위험이라도 닥치면 그들을 구하려 발 벗고 뛰어듭니다. 왜냐면 그들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기 자식이 못났다고 버리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효율이라는 샘법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대로가 귀하고 사랑스럽기에 세상의 샘법으로 자녀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4.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하기

뇌 과학자들이 원숭이를 가지고 연구하던 중 발견한 것이 거울 신경세포 (mirror neuron) 입니다. 원숭이가 자신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다른 존재가 물건을 집는 것을 보기만 할 때에도 비슷한 신경세포가 활성화 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인간에게도 이와 비슷한 거울 신경 시스템이 연구가 진행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망치로 손가락을 찧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야" 하면서 손가락을 움켜쥡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손가락을 움켜쥐었다는 시각적 정보만 처리하지 않고 내가 다친 것처럼 반응하는 공감적 시뮬레이션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경적 공명(neural resonance)이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공감적 돌봄에 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힘들어하니 내가 뭔가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의미있는 일을 했구나 라는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만족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연결되었구나 하는 것에서 오는 보상과 긍정적인 정서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원리가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 하시는 것에 우리도 마음 아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데 마음이 아무렇지 않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포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안는 행위인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나를 안아주는 행위입니다. 내가 마음 아픈 이의 마음을

보듬어 안아 줄 때, 내가 일방적으로 그를 안아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상대방이 나를 안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상대방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 주는 것입니다. 고통을 안아 주는 마음, 그 마음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에 부르신 지도 모르겠습니다.

5. 작은 이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14 절)."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 '작은' 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헬라말로 micros 인데 영어의 micro 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이크로로 표현하곤 하죠. 마태복음 10 장 42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11 장 11 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13 장 32 절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18 장 6 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 모든 말씀에서 작다는 말이 micros 이고 본문과 같이 보잘 것 없고 하찮다는 맥락 아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오히려 이렇게 보잘 것 없고 업신여김을 받는 존재들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의 복음서 곳곳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마음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이 마음이 없어지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길 잃은 자를 향한 우리의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들을 타박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멈춰야 합니다. 비난의 돌팔매질을 멈추고 오히려 그들을 안아주고 포옹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전 나눈 로마서 12 장 1 절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몸으로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를 설명하며 12 장 15 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쉬울까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은 쉽지만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비교라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람과 비교하면 내 형편이 좀 더 나아 보이니 함께 울어줄 수 있지만, 기뻐하는 사람의 행복은 우리에게 시기심을 만들기도 합니다.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롬 12 장 16 절),"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인생의 참 의미와 행복을 비천한 사람들 안에 숨겨 놓으신 듯 합니다. 우리가 그들 곁에 다가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때, 그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우리 인생의 참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 말씀드린 소설 속의 앤드류는 자기가 살린 산모와 아기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며 그의 수고를 보상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길을 잃거나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누구인가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숨겨 놓았으니, 그 사람을 보듬어 안음으로 우리 인생이 더 복되고 값진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샘법을 이제 바울이 제시하는 샘법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2 장 22 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런 샘법으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던 겁니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샘법과 이런 시선이 작동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